

울산지역 해양수산업 도약을 위한 '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0. 1.



울산지방해양수산청

Ul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

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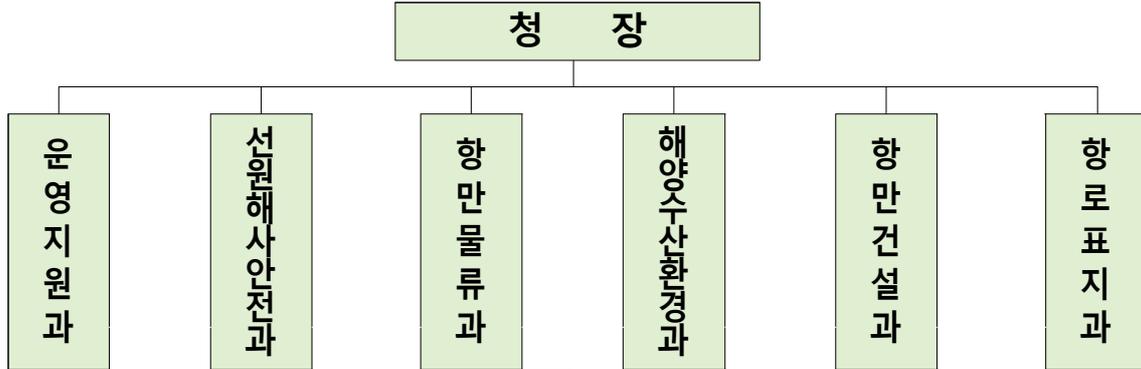


I. 기관 현황	1
II. '19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	3
III. '20년도 정책 추진 여건	4
IV. '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	5
1.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항만개발 등 추진	5
2. 지역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	6
3. 깨끗한 바다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	7
4.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요 창출	8
5. 지역과의 실질적인 소통 강화 및 공감 행정 실시	9

I

기관 현황

1 조직 및 정원(6개과 78명)



(2020. 1. 현재)

구 분	계	공 무 원				
		4급	5급	6~9급	연구직	관리운영직
정 원	78	1	6	66	1	4
현 원	73	1	5	64	1	2

* 해사안전감독관(2명), 청원경찰(4명), 공무원 근로자(5명) 별도 운영

2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19년(A)	'20년(B)	전년대비	
			(B-A)	(%)
합 계	166,413	185,267	18,854	11.3
■ 일반회계	23,371	12,633	-10,738	-45.9
울산청 인건비 및 운영경비	6,855	6,828	-27	-0.4
해양환경개선, 관공선 건조 등 기타	16,516	5,805	-10,711	-64.9
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	3,381	867	-2,514	-74.4
어촌어항개발	3,291	755	-2,536	-77.1
어업경영체등록	90	112	22	24.4
■ 교통시설특별회계	138,403	169,917	31,514	22.8
항만유지보수	3,759	2,427	-1,332	-35.4
재해안전항만, 일반항 건설	7,310	6,491	-819	-11.2
울산신항개발	125,205	155,691	30,486	24.3
항만보안시설 확충(신규)	-	2,988	2,988	100
항로표지확충 및 관리	2,129	2,320	191	9.0
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	1,258	1,850	592	47.1
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	1,258	1,850	592	47.1

3 관할구역 및 항만시설 현황

□ 관할구역

- 무역항(1) : 울산항(본항, 온산항, 미포항, 울산신항)
- 국가어항(2) : 방어진항(동구), 정자항(북구)



□ 항만시설 현황

구분	안벽길이(m)	접안능력(천DWT)	척수	하역능력(천톤)
계	20,668	4,004	116	71,728
울산본항	10,085	1,819	61	32,028
온산항	5,073	1,482	32	15,984
미포항	210	20	1	987
울산신항	5,300	683	22	22,729

- 울산항 해상구역 면적 : 114km²

II

‘19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

1.

주요 성과

- ① 염포부두 케미칼운반선 화재·폭발사고(‘19. 9.28)의 원활한 수습
 - 수습대책반 설치운영(10.3) 및 유관기관 간 대책회의(2회)를 주재하여 잔존 화물 및 연료유의 완전이적 등 원활한 사후조치 이행
- ②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합의 도출
 - 그 동안 담보상태를 보여 왔던 미포조선부지 개발에 대한 유관기관(우리청, 남구청, UPA) 업무협약 체결(‘19. 9.17)로 지역적 관심 도출
- ③ 동북아 에너지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
 - 1단계 북항 방파호안은 적기 준공(‘19. 4), 2단계 남항 방파호안 및 남방파제(2-2공구)는 전체공정 약 40%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
- ④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완전 준공
 -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장생포항에 대한 정화사업(340억원)을 완료(‘19.12)하여 장생포항 주변의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
- ⑤ 다양한 행사 실시로 지역에서의 해양레저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
 - 해양체험 페스티벌(‘19. 8), 등대 힐링콘서트(2회) 실시 및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(14회) 등으로 해양레저에 대한 점진적인 붐업 조성에 기여

2.

아쉬운 점

-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관 간 소통부족으로 구체적 성과 미흡
 - ‘울산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협의체’ 구성·운영을 통하여 관련정책 추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, 관련기관 참여 저조로 성과 부재

III

'20년도 정책 추진 여건

-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항만개발 추진 여건 성숙
 - 지난 해 JVA를 체결(19.11)한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 및 미포조선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체계 마련
- 2 염포부두 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항만관리에 대한 지역의 개선 요구
 - 액체화물이 전체 화물의 약 82%를 차지하는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, 환적제도를 포함한 울산항의 위험물 관리에 대한 전면적 개선 추진
- 3 지역경기 침체 극복방안으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
 - 지역별로 개별 협력체를 구성·운영, 맞춤형 해양관광시설 설치 및 해양레저 행사 운영 등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거양
- 4 해양쓰레기 및 오염퇴적물 제거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 유지 필요
 - 해양쓰레기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므로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사후 처리는 물론 사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

울산지역 해양수산분야 SWOT 분석			
강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항만관리·운영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 ◀항만 연관산업 업체의 다수 위치로 항만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 ◀항만물류지수의 안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(37%) ◀거주지역과 이격으로 대형항만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	기 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에너지허브 1단계 사업 및 미포조선부지 개발의 본격적 추진 여건 성숙 ◀울산신항 개발 인프라 공사(방파제, 방파호안)의 정상적 추진 ◀경기침체 극복방안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지역적 관심 태동 ◀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항만기능 재조정 등 필요성 증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◀울산항 취급화물이 지나치게 액체 화물에 편중 ◀협소한 해상구역 및 확장성 부족 ◀기상상황에 취약 및 하천기인 쓰레기 유입으로 항만안전 저해 ◀크루즈, 마리나 등 해양신사업 활성화 기반 취약 		위 협

1 에너지허브 2단계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 추진

- 에너지허브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 추진(연중)
 - 3개 선석을 건설하기 위한 남항 방파호안(‘20. 518억) 및 남방파제 2-2 공구 사업(490억)은 지속 추진, 남방파제 2-3공구 사업(160억)은 신규 착공

2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실무추진팀 구성·운영

- 금년 3월에 미포조선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T/F 구성·운영(‘20. 2/4분기)
 - 우리청, 울산시, 남구청 및 울산항만공사 합동으로 T/F를 구성하여 유사 개발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동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연구
 - * 예시) 법령연구팀(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내용 검토), 재정연구팀(국비 및 민자유치 방안 검토), 사업연구팀(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설치 시설물 검토)

3 에너지허브 1단계 사업 추진 행정지원

- 에너지허브 1단계 구축사업* 추진을 위해서는 하부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상부시설 설치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가 필요
 - 우리청에서는 신청 즉시 적기의 준공검사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통하여 동 사업이 당초 일정(‘20~’24)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 - * 저장시설 : 오일 139만 배럴, LNG 126만 배럴 / 사업비 : 6,160억원

4 연안보전 및 국가어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- 울산 고늘지구에 대한 연안정비공사(~’20.12)를 통하여 해수욕장 기능을 지속 유지하고, 정자항 정비사업(‘20.9. 착공)을 통하여 지역소득 창출 지원

1 울산항 환적제도 전면적 개선 추진

- 울산항에는 총 30개의 환적부두가 있으나, 염포부두 사고 이후 기 제외된 4개 부두* 이외에도 관련용역 결과를 반영, 환적 가능부두 적정성 전면 재검토(20. 3/4분기)
- * 염포부두, 8-2부두, 9부두, 일반부두
- 환적 가능부두에 대해서는 울산시, 울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액체 부두에 준하는 안전시설(워터커튼, 폼타워 등) 설치 협의·추진 검토(20. 상반기)
- 울산항 취급화물의 특징을 고려, 관할 소방서와 항만위험물 정보 공유 및 항만 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 매뉴얼 작성(20. 상반기)

2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

-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의 관심 및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주력
-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(연 4회), 위험물 취급이 많은 울산항 특성을 고려, 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선박교통 위해요소 T/F 회의 운영(연 2회) 등

3 선박대피협의회 활용을 통한 해상안전 확보

- 기상상황에 취약한 울산항의 여건을 고려, 태풍 등 내습 시 신속하게 선박 대피협의회*를 개최, 항만통제·해제 등을 통하여 통항선박 안전확보(연중)
- * 우리청, 해경, 관제센터, 울산항만공사, 도선사협회, 예선협회, 선사대리점협회 등 참석

4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항만구축

- 태풍 및 이상과랑 내습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울산신항 남방과제 1-1공구 보강공사(20. 50억) 발주 및 1-2공구 보강공사 설계 완료(20.12)
- 울산신항 제4항로 등부표에 추돌 스틸컷 영상전송시스템* 신설(2곳) 및 주전 수중방과제 남·북단등표 신설(2기, '20. 8)
- * 등부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선박과 추돌 영상을 운영실에 전송하는 시스템

1 울산항 제2부두 배면(여천천) 침사지 오염퇴적물 제거

- 울산시내를 관통하는 여천천의 하류부분에 위치한 침사지(沈砂池)*에서 조성목적과 다르게 악취가 발생하여 개선 추진
 - 우리청과 울산항만공사 협업으로 우선 금년에 확보한 예산(약 13억원) 범위 내에서 오염퇴적물을 제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 추가공사 실시
- * 여천천 퇴적물의 울산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웅덩이 형태로 설치한 공간

2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의 선제적 대응

- 울산항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해양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항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의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
 - 해양쓰레기 수거·협업체*를 중심으로 태화강의 쓰레기 발생 시기, 형태 및 발생량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전적 제거방안 마련('20. 상반기)
- * 우리청, 울산시, 해경, 울산항만공사, 해양환경공단 참여('17.부터 운영)

3 해양정화 활동의 주기적 실시 등으로 깨끗한 울산바다 조성

- 매월 지자체 또는 어촌계의 추천을 받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정화활동 실시(월 1회) 및 1사 1연안 가꾸기(44개사) 행사(분기 1회)를 실효적으로 실시
- 불법 낚시 행위 성행 지역 등에 대하여 우리청 보유 순찰선(2척)을 통한 집중 순찰실시(연중)로 오염물 투기 행위요인 사전 제거(필요 시 해경 협조)

4 항만 내 선박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점검 강화

- 울산항이 '20. 9. 1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·운영됨에 따라 항만내 선박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
 - 울산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샘플 채취(분기별 2회) 등을 통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, 위반선박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(1년 이하 징역 등)

1 개별협의체 운영으로 맞춤형 해양인프라 구축

- 울산지역의 경우,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추진여건이 성숙되지 않아,
 - 전체 협의체를 지양하고 우리청과 각 지자체 간 개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인프라 구축 및 해양레저행사 추진
 - * 예시) 우리청-남구청 간 장생포 지역 관광지 조성, 우리청-울주군 간 간절곶 공원 개발, 우리청-동구 간 등대 미니어처 설치, 우리청-지자체 간 어구창구 색채화 등

2 울산소재 등대를 지역 관광 자원화 추진

- 울기 및 간절곶 등대가 지역 관광지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등대를 해양관광 메카로 조성
 - 울기등대(동구)~대왕암 공원, 간절곶등대(울주군)~간절곶공원 등 주변명소와 패키지로 연계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조성
 - * '19년도의 경우 울기등대에 33만명, 간절곶 등대에 8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

3 다양한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

- 작년에 시범행사를 개최(약 4천명 참여)하여 호응을 얻은 '진하 해수욕장 해양레저 체험 행사'를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실시('20. 8)
- 청소년 대상 열린바다학교(5월~10월), 해양생물 체험교실(6월), 고래 해양교실(9월) 운영 및 2020 세계해양소년단 리갯타(8월) 행사 지원 등

4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생활 속 해양문화 참여기회 확대

- 제8회 등대문학상 공모전 개최('20. 6.~8), 등대 힐링콘서트 개최(2회), 등대 주말 체험숙소 운영(바다의 날 등) 등을 통하여 해양문화 저변확대에 기여

1 해운항만 및 수산분야를 구분하여 업무협의체 구성·운영

- 상호 관심사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업무논의를 위하여 다자간 협의체 대신 해운항만 및 수산분야별로 업무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(20. 1/4분기)
 - (해운항만분야) 울산해수청, 울산광역시, 울산항만공사
 - (수 산 분 야) 울산해수청, 울산광역시, 울산수협
- * 해운항만분야는 기 구성 협의체를 정비하여 구성하고, 수산분야는 신규로 구성

2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울산항 및 울산신항 공사현장 홍보 실시

- 지역에서 우리청 업무에 대한 정보 및 관심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울산신항 건설현장 및 등대 등에 대한 현장견학 실시(반기 1회)
- 울산지역 소재 언론사를 대상으로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울산항 등 항만 정책현장 팸투어 실시(반기 1회)

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

- 해경과 협업으로 승무경력 간소화(연중) 및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(반기 1회), 각종 증서(면허증, 등록증 등)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실시(연중) 등
- 울산 도선서비스 이용자 및 항로표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(연 1회)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마련

4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간담회 정기적 개최

- 일명 '김영란법' 시행 이후 우리청과 유관단·업체 간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(분기 1회)
 - * 예시) 분기별로 하역분야, 예·도선분야, 수산분야 등과 순차적 간담회 실시